

12억이하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200만원' 한도 감면

지방세입 관계 5개법령 공포안 7일 국무회의 의결 개인지방소득세 최저소득 과표 1200만→1400만원 법인지방소득세율 과표 구간별 0.1%p씩 인하키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200만원 범위에서 취득세를 감면 받는다.

주택 가격 급등으로 인한 과도한 세부담을 막기 위해 고령자·장기보유자 재산세 납부 유예제도도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세입 관계 5개 법령 및 시행령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5개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재정·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소급 적용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개정안은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방소득세 과표 구간 9년만 조정... 조부모 부양엔 세부담 ↓

12억 이하 주택을 매입하는 생애 최초 주

택 구입자에게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해준다.

기준에는 연소득 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 가구 중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면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이러한 기준을 대폭 개편해 수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번 감면 확대는 지난해 6월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미 취득세를 냈다면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춘 만 60세 이상 고령 또는 5년 이상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의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해준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지방세·국세 체납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고령자에 대한 가족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별도 주택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조부모와 별도 세대로 간주한다. 현재는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 한해 별도 세대로 간주해 취득세 다주택 중과 적용을 완화해왔다.

조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별도 세대로

보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과표구간별 0.05%포인트 인하)를 적용받게 된다.

0.6% 세율이 적용되는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올린다.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5000만원 이하'로, 2.4% 세율인 4600만~8800만원 이하 구간은 '5000만~8800만원 이하'로 각각 조정된다.

지방소득세 과표의 상향 조정은 근로자 계층에 대한 감세를 의미하며, 지난 2014년 과표 구간 설정 이후 9년 만에 처음 개편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방소득세 부담이 최소 8000원에서 최대 5만4000만원 가량 줄어든다.

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 제도도 신설해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세액의 일부를 2개월 이내 나눠 낼 수 있도록 했다.

개인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대상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낮췄다.

지난해 기준 주민세 사업소분 289억원과 지방교육세 42억원의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 아울러 법인지방소득세율은 각 과표 구간별 세율을 0.1%포인트씩 인하한다. 이는 국세인 법인세와 동반 개정사항이다.

사업자가 전제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었을 때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를 차감하는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도 도입한다.

◆인구감소지역 기업투자 촉진...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혜택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이전하는 기업에 5년간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감면한다. 이후 3년간 50% 범위에서 감면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사업전환기업에게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50% 깎아준다.

외국기업 투자 유치 강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지자체 실정에 맞게 15년 한도로 조례를 통한 추가 감면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일반투자의 경우 취득세·재산세 5년간 100%(이후 2년간 50%), 신성장동력 사업 사용과 사업양수 방식 취득의 경우 3년간 100%(이후 2년간 50%)를 각각 감면해주고 있다.

산업·물류단지, 중소기업, 농업·임업 등 지역의 주요 경제제 기반 분야들에 대한 감면 지원도 연장 또는 확대할 예정이다.

또 산업혁신을 촉진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한다.

특히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을 10%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확대한다.

창의성·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7.5%에서 50%까지 늘린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기술개발 촉진을 위

해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현행 40만원 한도로 2년 더 연장해준다.

민생물가의 인상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유관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은 유지 또는 확대한다.

아울러 두터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및 일부 사회복지시설에만 부여했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한다.

감면 지원이 확대되는 사회복지시설은 '유·무료'로 구분하고 감면 지원율을 무료시설은 취득세 100%·재산세 50%, 유료시설은 취득세·재산세 25%로 차등화한다. 단, 유·무료 시설 모두 조례로 50%포인트 추가 감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감면 대상 사회복지시설은 기존 약 3000곳에서 약 1만1000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행안부는 이번 법 시행에 따른 지방세 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각 지자체가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한창실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고물가 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 지연에 따른 혼란이나 세제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환급 등 후속 절차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호반·라인·해동건설, 광주광역시 '위파크 마크공원' 분양

광주 서구 금호동 산109번지 일원, 전용 84·135㎡ 총 917가구 공급
오는 13일 특별공급·14일 1순위 청약·15일 2순위 청약... 21일 발표



호반건설, 라인건설, 해동건설이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산109번지 일원 '위파크 마크공원'의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위파크 마크공원은 전 3층~지상 20층, 15개동, 총 917가구다. 전 가구를 수요자 선호도 높은 전용 84㎡와 135㎡의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했다. 타입별 가구 수는 ▲84㎡A 373가구 ▲84㎡B 159가구 ▲84㎡C 47가구 ▲84㎡D 114가구 ▲135㎡ 224가구다.

분양 일정은 오는 13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일(화) 1순위 청약, 15일(수)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일은 3월 21일(화)이고, 계약 기간은 4월 3일(월)부터 6일(목)까지 4일이다. 입주 예정일은 2026년 1월 예정이다. 위파크 마크공원의 1순위 청약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의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거주자에게 주어진다. 보유 주택수와 상관없이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위파크 마크공원 분양 관계자는 "상무지구와 금호지구를 연결하는 중심 입지에 숲세권 프리미엄을 갖춘 '위파크 마크공원'을 공급한다."며 "소비자 선호도 높은 중대형 특화평면에 생활 인프라도 우수해 추후 금호지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이 단지는 주변으로 다양한 교통망이 형성돼 있다. 상무대로, 윤천로, 서광주로, 광주제2순환도로 등이 인접해 광주 시내·외로 편리하

게 이동할 수 있다. 광주 도시철도 1호선 상무역이 인근에 있고, 오는 2026년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 예정이다.

위파크 마크공원은 대규모 공원을 가까이 둔 자연친화 단지다. 전체 22만㎡의 부지 중 약 17만㎡가 마크공원으로 조성되며, 마크공원 산책로와 연계될 예정이다. 여기에 백석산, 윤천 저수지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또한 주거 선호도 높은 상무지구와 금호지구 사이에 위치해 더블 생활권을 누릴 수 있다. 광주광역시청, 감대중컨벤션센터, 롯데마트, CGV, 신세계백화점 등 풍부한 인프라가 형성돼 있어 생활 편의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무초등학교, 만호초등학교, 금호중학교도 인근에 있어 교육여건이 양호하다.

위파크 마크공원은 전 가구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에 4베이 판상형 구조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이 용이하다.(일부타입 제외) 가변형 벽체를 활용해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공간 연출이 가능하며, 주부의 가사 동선을 배려해 주방가구를 배치했다. 또한, 드레스룸, 다목적실, 팬트리 등 다양한 수납공간도 제공한다.(타입별 상이)

커뮤니티 시설에는 피트니스클럽, 실내골프 연습장, 작은 도서관, 키즈카페, 코워킹스페이스(co-working space) 등이 마련돼 입주민들의 건강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돕는다. 또한, 마크공원 산책로와 바로 연결되는 통로가 조성되어 도심 속에서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단지 주출입구쪽에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차량 정차 공간인 통학버스 정류장이 배치되며, 단지 내 어린이집도 들어설 예정이다. 위파크 마크공원의 견본주택은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956-7에 위치한다. 시공은 호반건설, 라인건설, 해동건설이 맡았다. 김재환기자



현대차, '주행거리 410km' 신형 코나일렉트릭

현대자동차가 7일 디지털 월드 프리미어 영상을 통해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디올 뉴 코나 일렉트릭'을 공개했다. 실물은 이달 말 열리는 '2023 서울모빌리티쇼'에서 세계 최초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날 현대차는 코나 일렉트릭의 주요 사양과 디자인·편의기능 등을 소개하며 "다양한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친환경성과 실용성을 두루 갖춘 다재다능한 SUV"라고 강조했다.

코나 일렉트릭은 64.8kWh 배터리와 150kW 모터를 장착했다. 산업부 인증 기준 동급 최대 수준인 410km 이상의 1회 충전 주행 가능거리 달성이 예상된다.

외장은 기존 모델의 특징을 이어받으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구현했다. 파라메트릭 픽셀 요소를 입힌 수평형 램프, 아머(Armor) 형상의 휠아치 클레딩, 일체형으로 디자인된 스포일러와 보조제동등, 역동적 느낌을 담은 측면부 등이 고려다.

실내는 운전 맞춤형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편의성을 높였다. 12.3인치 클러스터와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통합된 파라노믹 디스플레이가 장착됐고 수평형 레이아웃의 크래시패드를 배치해 전방 시계를 확보하고 공간감을 극대화했다.

스티어링 휠로 옮겨간 전자식 변속 레버, 실내 수납공간을 고려해 디자인된 무드조명, 2열 플랫 플로어, 넓은 콘솔 공간 등 고객 맞춤형 기능을 탑재해 운전자의 편의성을 돕는다.

◆충격에 강한 전기차...안전기능 대폭 향상

코나 일렉트릭은 최근 강화된 충돌 안전 기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사양을 대폭 개선했다. 우선 객실을 보호하는 도어 열림부와 센터 팔라의 강성을 보강하고, 리어 사이드 폴로어 멤버는 현대차 최초로 180k급 강판이 최초로 적용됐다.

부품마다 서로 다른 인장강도 강판을 사용해 충격을 흡수하고 버틸 수 있도록 설계했다. 전방 충돌이 발생하면 충격이 두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하고, 하부 부품 중 일부를 프레임에서 빠지도록 했다. 충격을 효율적으로 흡수·분산·차단시켜 불의의 사고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게 현대차의 설명이다.

핵심 안전 사양으로는 ▲전방 충돌방지 보조(FCA)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BCA)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RCCA) ▲고속도로 주행 보조(HDA) ▲차로 이탈방지 보조(LKA) ▲차로 유지 보조(LFA)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CC)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NSCC, 안전구간/곡선로) ▲지능형 속도제한 보조(ISLA) ▲안전 하차 경고(SEW) ▲운전자 주의 경고(DAW) 등이 적용됐다.

또 ▲고속도로 주행 보조 2(HDA2) ▲전방 충돌방지 보조 2(FCA2)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PCAR)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NSCC, 고속도로 진출입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RSPA) ▲서라운드 뷰 모니터(SVM) ▲후측방 모니터(BVM) 등 탑재했다.

◆EV 전용 모드로 특화된 기능 제공

코나 일렉트릭에는 파워트레인의 페달을 난방에 활용하는 고효율 히트펌프와 전력량을 조절해주는 고전압 PTC히터가 적용돼 전기차에 최적화된 공조 시스템을 구축했다. 애프터블로워를 통해 공조 에어컨 냄새를 차단하고, 충전도어 발열 시스템을 적용해 겨울철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차량을 항상 최신 사양으로 유지할 수 있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ccNC', 빌트인 캠, 하이패스 기능 등이 동급 최초로 적용됐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디지털 키 2티어,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도 적용됐다.

오유나기자

쿠쿠, '트윈 프레스 썬디' 판매... '최화정쇼'서 할인 혜택

일시불 구매, 3만원 할인 혜택

종합 건강 생활가전 기업 '쿠쿠'가 오는 8일 CJ온스타일 TV홈쇼핑 '최화정쇼'에서 초소형 프리미엄 밥솥 '트윈 프레스 썬디' 판매를 진행한다. 방송은 저녁 8시 45분이다.

쿠쿠의 '트윈 프레스 썬디' 밥솥은 백미 0.5인분 기준 9분30초, 1인분 기준 11분대에 취사 가능한 '슈퍼패스' 기능을 더해 출시했다. 또한

초고압·무압 이중모션 벨트로 백미, 잡곡, 현미밥 등 취향에 맞는 조리 가능하다.

쿠쿠는 이번 방송을 통해 '트윈 프레스 썬디' 제품을 소개하고 구매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선 일시불 구매 시 3만원을 할인을 제공한다. 모든 구매 고객에게 '에코 스테인리스 커버'도 내솥도 한 개 더 증정한다. 더불어 구매 후 포도 리뷰를 작성한 고객에게는 3만원 상당의



쿠쿠 정품 패키지를 증정할 계획이다.

이슬비기자